

##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2)

유영구 / 중앙일보사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지난호에 이어 북한 권력의 최정상에 위치한 노동당 정치국의 정위원 최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5명과 정치국 후보위원 8명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정위원의 경력은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후보위원의 경우 지면사정을 감안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다음호부터는 당비서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부원,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등 여러 분야의 핵심간부들을 업무 분야별로 소개할 예정이다).

### <정치국 정위원>

#### 최 광



최광은 빨치산 출신의 원로로서 한차례 크게 실각했다가 재기한 인민군 총참모장이다.

그는 함경북도 후창에서 태어나 1920년대 말 부모를 따라 만주 안도지방으로 이주했다.

용정의 대성중학을 중퇴한 뒤 1935년경부터 김일성의 부하로 따라 다녔다. 1940년대 초 소련으로 들어가 극동군 88특별정찰여단의 대원으로 몇년 보냈고 1945년에는 소련군의 대일전부작전에도 참가했다.

8·15직후 귀국하여 보안간부훈련소 연대장, 38경비연대 참모장, 연대장 등 초창기 인민군의 요직을 맡았다. 그가 인민군 1사단장이 된 것은 38선 일대에서 무력충돌이 잦았던 1948년 2월이다. 6·25전쟁이 발발할 무렵 13사단장이었고 1952년에 강건군관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53년 이후 5군단장, 1집단군 참모장 등을 거치고 1960년에 공군사령관, 1962년에 민족보위성 부상, 1963년에 인민군 총참모장직을 맡아 명실상부한 군의 실력자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김일성체제의 아성인 인민군 창설 및 강화에 헌신한 고급 군사지휘관인 최광은 공격 및 방어전의 맹장으로 이름이 높아 총참모장에 이른 것이다.

최광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후보위원으로 처음 진입한 것은 1956년 4월이며 1961년에 중

양위원이 됐다. 1966년 10월에는 당정치위원회 후보위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다가 최광은 1969년 1월에 터진 김창봉·허봉학사건에 연루, 철직되어 하루 아침에 용진광산 노동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의 정치적 불운은 김창봉·허봉학 등 군부강경파가 김일성·김영주에 반대하는 반당유모를 꾸미고 있음을 감지하고도 묵인한데서 비롯됐다.

그는 광산노동자로 전락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막장에서 석탄생산 증대에 노력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잠도 휴식도 잊은채 다른 노동자들과 갱속에서 살다시피 했다. 한편으론 당조직에 자기비판을 제출하는 정치력도 보였다. 그는 1973년에 광산의 부지배인으로 임명됨으로써 재기의 길을 열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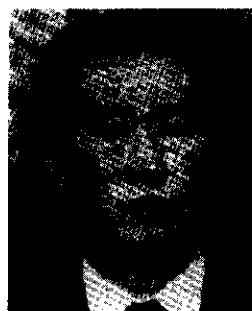
최광의 철직과 관련해서는 그가 바람을 피워 빨치산 출신의 부인 김옥순(전 여성동맹 부위원장)을 고생시켜 김일성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그는 1977년에 황해남도 인민위원장이 되어 재기 가능성을 더욱 높였으며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과거의 직위와 영광을 되찾기 시작했다. 1981년 3월부터는 정부원의 부총리로 자리를 옮겼고 1988년 2월에 인민군 총참모장에 재기용되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당정치국원에 선출된 것은 1990년 5월이고 그 뒤 현재까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극적인 인생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최광은 군원로의 최고지도자로 김일성과 오진우 사망 이후 군사외교 방면에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군사대표단장 자격으로 캄보디아(1994년 11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1995년 4월) 등지를 방문하고, 북한을 방문한 중국 인민해방군(1995년 3월)과 쿠바 공군(1995년 6월) 대표단을 각각 접견했다. 최근 그의 활동과 위상으로 보아 오진우의 뒤를 이어 인민부력부장(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김성일이 군부 세대교체를 결심할 경우 그는 부주석에 임명되거나 은퇴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 계응태



계응태는 빨치산과 인연을 지닌 외교·무역에 밝은 실무형 지도자다. 지금은 노동당 중앙위 사법 및 공안담당 비서를 맡고 있어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재판소, 검찰소 등을 관할한다.

그는 함북 길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길주 보통학교와 만주용정의 대성중학을 나왔다. 그뒤 만주 봉천대학을 다니다 중퇴했다. 1936년 김일성 빨치산부대와 연계를 가진 일이 있고 그뒤 국내로 들어와 길주·단천지방에서 좌익 지하운동에 참가하였다.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함북도당 지도원, 부부장으로 일하다가 1948년에 당고급간부 양성케이스로 발탁되어 소련 고급당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김일성이 빨치산 시절의 인연을 중시해 해방후 소련 유학까지 보내 '자기 사람'으로 키워낸 사례에 속한다.

전쟁시기인 1951년에 귀국하여 당 국제부 과장으로 당중앙에 들어갔고 그뒤 국제부 부부장(1957년), 내각 외무성 부상(1960년), 내각 무역성 부상(1962년), 내각 무역상(1967년), 정부원 부총리(1976년), 평남도당 책임비서(1983년), 평남 행정경제지도위원회상(1985년), 당중앙위 비서(1986년),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회위원장(1986년) 등 당·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1970년에 당중앙위원, 1977년에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올라섰고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당정치국 위원이자(1981년 10월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1988년 3월에 정위원으로 재승격.

그가 당 정치위원, 정부원 제1부총리까지 역임하다가 한때 후보위원, 평남도당 책임비서로 격하된 것은 과오에 따른 강직이라기 보다 정책조정에 따른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뒤 당비서, 정치위원으로 순탄한 길을 걸어온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계승태는 전문당으로서 큰 광견없이 순탄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는 다소 고지식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김일성과는 특별한 개인적 인연은 없으나 1986년 이후 김정일의 실무지도 및 현지도에 따라 다니는 등 밀착분위기를 보여왔다.

그가 당비서 보직 외에 현재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당내에서 사법 및 공안 담당비서이기 때문이다. 그가 공안담

당이라 해도 실권이 별로 없다는게 중론이다. 그는 1995년 2월 김정일 탄생 경축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고 4월에는 김정일의 국가과학원 현지도에 동행하는 등 김정일과 밀착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일시대의 개막과 함께 정치무대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 전병호



전병호는 김정일시대에 들어와 승승장구한 대표주자로 현재 당비서(군수담당·당군수정책 겸열부장·국방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1924년 함북 무산에서 태어난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모스크바대학 유학 시절 급속기계 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56년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간부생활을 시작한 이래 주로 당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1960년), 중앙당학교 강좌장(1964년), 당조직지도부 부부장(1968년) 등 당조직 분야에서 성장한 전문당료다.

1973년 9월에 조직사상비서가 된 김정일은 1974년부터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이던 전병호를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다시 불러들여 지적에 두고 함께 일했다. 전병호는 김정일 유일지도체계 확립의 첨병노릇을 하면서 권력핵심에 진입하게 된다. 김국태 한성룡과 함께 보수

인맥을 형성하면서 김정일의 지지기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보수인맥은 체제에 위협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급진적 개방에 반대하고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개방을 주창한다.

전병호는 당건설 이론 분야의 권위자이며 문필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김일성·김정일 명의의 논문이나 담화 원고의 작성에 참가해 왔다.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만큼 조직실무도 뛰어나 1976년부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자격으로 부장 겸 비서인 김정일을 사실상 대리해온 일급참모다. 1979년부터는 당주석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김일성·김정일을 보좌하는 일을 맡다가 1986년에 당비서로 발탁됐다(당중앙위원 1980년, 정치국 후보위원 1982년, 정치국 위원 1988년).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주석부는 영도핵심그룹의 호위·의료·생활조건 보장 및 대내외 활동계획 작성 등을 도맡아 처리하는 당중앙위원회 내의 주요부서다.

당조직전문가인 그가 군수산업과 인연이 맺어진 것은 1982년에 제2경제위원장으로 가용되면서다. 1986년에는 당비서로 자리를 옮겨 제2경제위원회를 통제하는 당내의 최고 책임자로 부상했다. 그가 1988년 4월에 김정일의 강계시 자동차공업부문 현지지도를 수행한 것도 군수분야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강계시 일대는 북한의 최대 군수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이고 전병호는 자동차·공작기계 쪽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1990년 5월에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노동당과 국방위원회의 '파이프라인'

을 받아 당의 입장, 즉 김정일의 의도를 국방위원회에 관철시키는 조치여서 주목을 끌었다.

그의 최근 활동이 별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김정일의 국가과학원 현지지도(1995년 4월)에 동행한 사실은 확인된다. 북한이 군수부문을 민수로 전환하는 극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전병호도 난공불락의 지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성룡



한성룡은 노동당 경제담당비서 겸 경제정책검열부장인 경제전문관료이다.

혁명이 유가족인 그의 아버지는 김일성 백치산부대의 중대장

을 하나가 1938년 무산지구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아버지의 활동과 관련, 일제의 탄압을 피해 고향 병천을 떠나 흥남에서 숨어사는 곤란을 겪었다. 흥남에서는 한 기계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6년에 김일성의 배려로 만경대 혁명가유자녀학원에 입학, 엘리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1949년에 김일성종합대학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뒤 전쟁 시기에 인민군 대대의 선동원으로 잠시 일하다가 1952년에 복학했다.

그위 1954년에 체코의 프라하공과대학 기계공학부로 유학갔다가 1957년에 귀국, 희천기계공장의 기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노

동당 중앙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당중앙위 중공업부 지도원에 임명된 1960년이다.

그는 중공업부의 과장(1965년), 부부장(1968년)을 기친 뒤 당에서 내각으로 자리를 옮겨 제2기계공업성 부상(1970년), 제2기계공업상(1971년), 정무원 선박기계공업부장(1972년 12월)으로 승진했으며 다시 당 중공업부장(1976년),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1979년), 자강도 행정경제위원장(1985년), 다시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1987년), 당비서(1988년) 등 당·정의 중공업계통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1980년에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6년에 당중앙위원, 1988년에 당정치국 후보위원을 거쳐 1990년 5월에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섰다.

그는 김정일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해 가는 시기에 잠시 정무원 사부국장(정무원 당위원회 비서 겸임)으로 일하면서 김정일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는 김정일이 정무원 사업에 관여할 때 협조를 아끼지 않아 급속히 가까워졌다. 그뒤 줄곧 김정일의 정치적 기취와 행보를 같이하다가 당부장·비서로 고속 승진하게 된다.

당의 경제노선을 국가부문에서 실현하는 자리인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한성룡은 당과 국가 경제정책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실권자다.

귀순자 강명도씨는 그가 “경제관료 중에서도 드물게 김정일이 주관하는 기쁨조 파티에 자리를 같이하는 등 김정일과도 친밀한 관계”라며 “1992년 12월 정무원 개편 때 김정일은 한성룡을 총리 후보로 밀었다”고 증언한다. 당시 한성

룡은 김일성이 추천한 강성산 카드에 밀려 총리직을 놓쳤다는 얘기다.

## 서윤석



빨치산 2세인 서윤석은 당조직 부문의 전형적인 당료이다.

그의 아버지는 193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 빨치산부대를 따라 다니다 1938년 서울에 일경에게 사살당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서윤석은 5세까지는 북간도에서 살다가 그뒤 후창, 상계 등지를 배회하며 살다가 해방 직후에 야 분맹자 퇴치학교에서 글을 깨우쳤다. 그는 1947년에 김일성의 배려로 만경대 혁명가유사녀학원에 들어가 엘리트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전쟁때는 군에 입대하였다.

1953년에 정전되면서 군에서 제대한 서윤석은 김일성종합대학 특선학부를 거쳐 이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나왔다. 졸업과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지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다. 그뒤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1959년), 부부장(1964년)을 거쳐 1970년에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로 발탁되는 등 당료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1975년에 당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1976년에 평양시당, 1986년 11월에 평남도당의 책임비서를 맡았다. 그는 1970년에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0년에 당정치위원회 후보위원·중앙위원을 거쳐 1982년 8월부터 정치

국 위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윤석은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 시절에 반 김일성세력 숙청에 앞장섰으며 1967년 이후의 유일사상체제 확립과정에서는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중심역할을 수행했다. 1967년 5월의 박금철·이효순사건 당시에 이들과 김도만, 박용국, 고혁 등을 숙청하는데 앞장선 선봉장이었다. 1969년에는 김일성·김영주에게 반가를 들었던 군부강경과 김창봉, 허봉학 등을 몰아내는 일도 직접 맡았다. 특히 김정일 후계체제가 가동되던 1973년부터는 조직사상비서인 김정일 밑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일하며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그는 김정일 후계체제에 반기를 든 김동규(정치위원·비서·부주사), 유상식(정치위원회 후보위원·비서)을 비롯해 1974~1978년간에 수십명의 당·정·군 계통 간부들을 현직에서 몰아냈다.

그는 또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유일사상체제 확립 10대원칙'을 직접 만들어 냈으며 김정일 선전물인 「주체위업을 빛내시어」, 「혁명의 태풍 이어 나가시는 길에서」 등 이른바 '택성실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조직지도부 관장 아래 이 '택성실기'를 당간부들과 당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학습토록케 한다.

서윤석은 '택성실기'류 외에 당시 보통교육장이던 진남선(오진우의 처)과 고령당학교 교육부장 김환 등과 함께 「김정일의 어린 시절」, 「김정일 혁명활동 도록」, 「김정일 혁명사상 연구자료」 등을 만들기도 했다. 또 김정일에 관한 사적관, 사적지, 사적물을 만들어 그의 부상

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눈엣가시였던 김성애세력을 거세하는 데도 공을 세워 김정일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구축했다. 현재 정치국원 가운데 유일하게 평남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보직으로 평양 다음으로 중요한 평남의 지방행정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지방책임자여서 그런지 최근에는 그의 활봉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 〈정치국 후보위원〉

### 김철민



제2경제위원장 김철민은 항일빨치산 출신의 군부지도자이다. 그는 1920년대에 부모를 따라 간도지방으로 이주했으며 193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빨치산

부대에 참가했다. 해방뒤 임북해 1946년에는 보안간부훈련소 내대장, 1950년에는 인민군 10사단 연대장을 거쳐 1954년에 소련 군사아카데미로 유학을 떠났다.

그뒤 귀국하여 인민군 37사단장(소장, 1958년), 민족보위성 작전국장(중장, 1964년), 2군사령관(1965년), 인민군 부총참모장(상장, 1968년), 제1부총참모장(1970년), 당중앙 군사비서(1979년) 등 군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가운데 1970년에 당중앙위원이 됐고 1980년에는 정치국 후

보위원, 군사위원으로 발탁돼 군사간부로서는 오진우, 최광을 빼면 최고위직에 선임하였다.

김철만은 소련에서 현대군사과학을 익힌 동시에 실전체험이 풍부한 전형적인 군인이다. 그는 빨치산 시절 김일성의 전령병 노릇을 한 직계인물로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69년 1월 군부 강경파인 김창봉·허봉학 등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84년을 전후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잠시 물러나 '실각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으며 1990년 5월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되면서 재기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국방위원 겸 군수당인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국방위원회 산하의 제2경제위원회는 민간경제 총괄기구인 정부원 못지않게 방대한 조직이지만 외부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일성 인맥이지만 김정일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귀순자 강명도 씨는 김철만이 전병호-한성룡-김국태 라인에 가깝다고 밝힌다. 김철만은 교협압·당노 등 시병 때문에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지는 못한 형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태복

교육통으로 알려진 당비서 최태복은 김용순이 국제비서에서 대남비서로 옮기면서 한때 국제담당으로 일하다가 다시 그 자신의 본령인 과학교육담당으로 돌아갔다.



1929년에 함북 길주에서 태어난 최태복은 항일빨치산으로 전사한 아버지덕에 해방후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김일성종합대학과 동독 라이프치히공대를

마쳤다. 1959년에 귀국한 그는 당과학교육부 지도원으로 간부생활을 시작했고 1961년에 함흥화학공대 교수로 가 한때 연구직에 종사하기도 했다. 그는 화학분야 전문가이자 당·정의 교육테크노크랫이다.

그가 김정일의 측근으로 부상된 것은 1972년 무렵이다. 당중앙의 학교교육부 과장 시절에 학생들 속에서 '김정일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기여한게 계기였다.

김정일의 교육관련 지시들, 이를테면 학생 과학기술수준 제고, 1만페이지독서운동 전개, 외국어교육 강화 등에 힘쏟아 눈에 들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요구되는 사상교육과 동시에 과학기술교육에 주력했던 것이다.

그뒤 그가 교육분야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했음은 당학교 교육부 부부장(1976년), 정부원 고등교육부장 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1978년), 정부원 교육위원장(고등교육부장 겸임, 1980년) 등으로 자리를 옮긴 데서도 알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구축하는데 '일등공신'이었던 만큼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단단해진 1986년 12월 당직 개편때 당중앙위원 겸 비서로 전격 발탁돼 노동당의 중추인물로

떠올랐다.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것은 1990년 5월이다. 1993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시 당 국제비서를 맡다가 그뒤 다시 과학교육비서로 돌아갔다.

최태복은 1995년 4월에 김정일의 국가과학원 현지지도에 동행했는데 이것은 그가 김정일의 측근이라는 점과 과학교육 분야를 맡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최영림

부총리 겸 금속공업부장 최영림은 김일성 비서실장 출신의 전문당료이다.

원산의 철도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해방후 공산청년동맹 열성분자로 활동하다가 1947년에 공청의 추천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 들어갔다. 진시에는 사단문화지도원을 하다가 1952년 여름에 제대, 대학에 복교하였다. 1953년말~1956년초 사이에 모스크바종합대학에 유학을 했다.

귀국후 당중앙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간부 생활을 시작했으며 곧바로 책임지도원을 거쳐 1962년에는 국제사업부로 자리를 옮겨 부부장을 맡았다. 그뒤로는 조직지도부 부부장(1967년)을 잠시 하다가 1970년에 김일성 비서실장, 1973년에 당중앙 주석부장 겸 총부부장을 맡아 김일성과 김정일의 비서실 전체를 총괄해 왔다. 그뒤 중앙인민위원회 위원(1983년 4월), 정무원 제1부총리(1984년 4월)로 일한 뒤 1985년 10월에 부총리에서 물러났고 1990년 5월에 정

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 복귀하였다. 국가계획위원장에서 금속공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1992년 12월이다.

그가 당중앙위원이 된 것은 1970년이고 1980년 6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다. 다시 1981년 8월에 정치국 위원이 됐다가 1985년 10월에 정치국에서 제명당하는 불운을 겪은 뒤 1990년 5월에 후보위원으로 재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영림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도당당) 시절에 연안파를 제거하기 위한 반중파 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당시 연안파들의 반당 반혁명적 음모를 폭로하는 보고서의 초안작성자가 최영림이다. 김일성이 최영림의 능력과 수준을 높이 평가함에 따라 그는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그는 국제사업부 부부장 시절에 김일성의 공식·비공식 해외 나들이를 수행하면서 연설문, 외교문서 작성 등을 도맡았다. 김일성은 1967년 박금철(조직담당 부위원장)·이호순(대남사업 총국장)사건 때 최영림을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임명했고, 최영림은 갑산파의 반김일성활동을 수습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한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작용해 비서실장에 발탁되기에 이른 것이다.

최영림은 비서실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김정일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장명도씨도 “최영림은 조직비서 김정일과 별도의 비밀정보 채널을 유지해 김정일의 눈에 들었다”면서 “김일성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를 김정일에게 따로 보고했다”고 증언한다.



## 홍성남



부총리 홍성남은 전형적인 기술행정관료이다.

그는 교육자 가정에서 태어나 일제 하에서 원산의 보통학교와 함흥의 영성중학교를

나왔다. 해방뒤 김일성종합대학 특설학부를 마치고 체코의 프라하공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해 현대과학기술과 지식을 갖게 됐다.

홍성남은 유학에서 돌아온 뒤 당중앙 중공업부에 맡을 틀여 놓은 이래 중공업부문에서 잔뼈가 굵었다. 중공업부 지도원·과장(1954년), 구성공작기계공장 지배인(1957년), 당중앙 중공업부 부부장(1964년), 내각 사부국 5사부국장(1968년), 당중앙 중공업부장(1971년) 등이 그가 거쳐간 자리이다.

그가 김일성의 눈에 쏠린 것은 1957년 이후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지배인으로 일할 때였다. 그는 공작기계 1만대 생산과제를 제기한 김일성의 교시를 수행해 신임을 얻었다. 충성심에다 전문적인 기술행정능력을 갖춰 김일성·김정일체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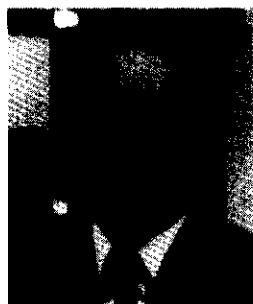
그뒤 1973년 9월에 정무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맡아 북한경제 전반을 주무르다가 1975년에 부총리, 1977년에 국가계획위원장 자리에서 각각 물러났다. 이때부터 한동안 그의 직급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

인다. 그뒤 1978~1981년간 주석부 참사실장으로 김일성의 측근에서 일한 뒤 1982년 2월에 평안남도 경제지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5년 9월에 다시 정무원으로 돌아와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86년 2월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맡았다.

그뒤 1990년 5월까지 부총리 자리를 그대로 둔채 국가계획위원장 임명·해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은 1980년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북한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그가 당쪽에서 중앙위원이 된 것을 1978년으로 다소 늦은 편이지만 1986년 12월에 당정치국원으로 선직 승진해 주목을 끌었으며 1989년 3월부터 지금까지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고 있다.

## 양형섭



양형섭은 학자 출신으로 최고인민회의(의회)를 책임지고 있다.

그는 해방후 공청 활동에 참가했으며 공청의 추천을 받아 1947년에 김일성대학에 들어

갔고 1949년에 모스크바대학 정치경제학부로 유학을 갔다.

1953년에 귀국한 그는 당중앙의 선전선동부 지도원을 잠시 하다가 이듬해 인민경제대학 정치경제학 강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61년

10월에 노동당 중앙당학교장, 다음해 4월에 당 중앙위 직속 맑스 레닌주의연구소장을 각각 맡아 이론계의 실세로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뒤 내각 고등교육상(1967년), 당선전선동부장(1968년), 당비서 겸 정치위원회 후보위원(1970년), 당정치위원(1974년) 등 이론선진 분야의 책임자로 승진가능을 달렸다. 그러다가 1980년 7월에 사회과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치위원과 비서에서 물러나 당직에서 멀어졌다.

그가 당정치위원 겸 비서에서 물러난 것은 교육부에서의 김정일 지도체계 수립 및 외국어 및 과학기술교육 발전에 관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를 잘못 집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형섭은 북한 지식계를 대표하는 이론가로 논리정연한 실험력과 명장으로 유명하다. 사상 이론 분야에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기여한 공로자이다. 더욱이 김정일의 큰 고모의 딸인 김신숙의 남편이어서 김일성 집안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의장직은 1983년 4월부터 계속 지켜오고 있다. 당직은 중앙위원 자리만 지키다가 1993년 12월 13년만에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라 전환점이 마련됐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의장으로 대외활동에 두각을 나타내 김정일시대에서도 주요 지도자로 남게 될 전망이다.

## 홍석형

홍석형은 1993년 12월에 일약 국가계획위원

장에 발탁된 떠오르는 별이다. 소설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 전 부수상의 친손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경력으로 확인되는 것은 1984년 11월~1985년 11월 금속공업부 제1부부장 역임, 1988년 9월 이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가 전부였다.

그의 벼락 출세는 1986년 2월에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불과했던 그가 1993년 12월에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동시에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가 1994~96년간의 완충기 경제의 사령탑으로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방침의 실천을 이끌고 있지만 그의 경제관리능력에 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 연형묵



자강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인 연형묵은 정무원 총리 시절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단장으로 서울을 몇 차례 방문해 우리에게 낯익다.

그는 해방 이듬해 평양으로 들어와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김일성대학 이공학부를 다녔고 체코 프라하공대에 유학한 뒤 1955년에 귀국했다. 귀국과 함께 당중앙 조직지도부의 지도원으로 간부생활을 시작한 그는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1960년)을 거쳐 당중공업부 부부장(1962

년), 중공업부장(1968년), 중공업비서(1970년) 등 중공업분야 최고전문가로 성장한다. 특히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당비서 겸 중공업부장·중앙위원(후보위원은 1967년), 1974년 12월에는 당정치위원으로 선출되어 노동당의 신진세대로 일찌감치 출세가도를 달렸다.

연형묵은 러시아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조직능력이 있으며 부하 직원에게 인기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귀순자 강명도씨에 따르면 “윗사람이 싫은 눈치를 보이면 바른 말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한다. 김일성이 빨치산시절에 독감이 걸려 사경을 헤매 때, 그의 가족이 구해준 인연이 있어 그에 대한 김일성의 총애가 남달랐다고 한다.

연형묵의 정치적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74년부터 당중앙위 3대혁명소조 중앙지도부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김정일과 호흡을 같이한 점이다. 그러나 3대혁명 소조원 처녀들을 농락한 것이 사회문제화되어 1977년에 함북 김책시 철제 일용품공장 지배인으로 좌천당하는 쓰라림을 맛본다. 그가 다시 당비서로 중앙 정치부대로 복귀한 것은 1979년이다. 1980년 10월의 6차 당대회에서 당정치국 위위·비서 자리에 유임됐다. 그는 1985년 10월 정부원 제1부총리로 자리를 옮긴 뒤 1986년 12월에 당비서로 되돌아 갔다.

그뒤 1988년 12월부터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1992년 12월에 총리직에서 해임되는 동시에 당정치국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면서 지방부대로 빠져 나갔다. 중공업 전문가인 그가 자강


도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것은 자강도에 군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경제사문역이었고 3대혁명소조를 함께 이끌던 인연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중앙 정치부대로 복귀해 정치국 정위원이 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선실

이선실은 1992년 9월 국가안전기획부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하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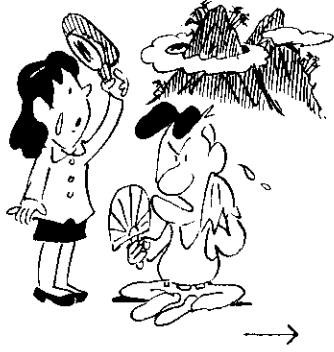
그녀의 경력에서 북한측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1980년 10월 당중앙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전격 발탁된 것을 시작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1982년 2월의 7기, 1986년 11월의 8기, 1990년 4월의 9기)으로 선출된게 거의 전부이다.

안기부는 이선실이 1966년과 1973년 두차례 한국에 입국하고, 1980년 3월에는 일본에서 호적을 위장해 재입국해 1990년 10월까지 약 10년간 당조직 구축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측은 그녀가 1991년 1월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장’ 자격으로 조총련 부의장 신상대와 범민련 해외 의장 윤이상이 김일성과 회담하는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밖에 1992년 4월 김일성의 80세 생일 경축연회에 참석한 것 외에는 일체의 동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7월의 권과 로작 嬢

ART가이



얼음보숭이도 재료가 부실해 맛이 없고 와삭그려 흥렸소



우유 버터 설탕등이 듬뿍 들어 부드럽고 맛이 있죠



그것이 바로 폐쇄사회의 취약점이오!



바로 그렇소! 맛있게 만드는 곳과 개방교류 비교해보야 만들수 있지 않겠소



그래서 관광산업을 끌어들이는 달려박사라 하겠소



지금도 늦지 않소